

이재명 '난제'...대장동 '잠재적 뇌관'·洛 지지자 포용도

25일 퇴임 기자회견 "대한민국 세계표준으로"

모처럼 지지율반등...與 예산국회로 지원사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지사직 퇴임하고 대선 본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자정까지 지지자를 수행한 후 이재명은 대선후보 신분으로 본격적으로 대권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의 최우선 과제는 반등한 지지율을 40%대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유지를 하는 것이다. 경선 후유증 탓에 후보 선출 직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데다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도리어 꺾이는 양상이 이어졌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행보에 나선 후 대선후보로서 안정적인 본선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당내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이재명 37.5% 윤석열 33.6%,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재명 36.7%, 홍준표 34.8%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 후보가 다시 야권 후보들을 제치고 다시 선두로 나선 것이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자중수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이 후보도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이 후보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는 등 이 후보를 전폭 지원할 체비를 갖추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장기적인 난제는 대장동 의혹이다. 대장동 의혹은 지난 18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공세를 상당부분 무위로 돌리면서 부담을 한숨 덜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

더욱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손을 떠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빠르게 수사결과가 나와 문제가 일단락되길 바라나, 도리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질 경우 특검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대선 내내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을 장기 과제인 셈이다.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할 것을 놓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표적 수사'였다는 입장이나, 보수 야권은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특검을 외치는 양상이다.

여기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외양으로 중도 사퇴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나오는 등 대장동 문제는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완전히 끌어안는 원팀 구축도 쉽지 않은 숙제다. 이 후보는 전날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다.

경선 이후 14일만에 성사된 회동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맡기로 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인 신(新)복지 정책 계승을 약속했다. 양측은 회동이 끝난 뒤 손을 맞잡고 골목을 나서기도 했다. 그간 경선 갈등을 끝내고 원팀으로 결속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한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을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대선유세 지원 전면에 서기 보다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선 이해찬 당시 대표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최일선을 누빈 바 있다.

전날 회동 첫머리에 배석했던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선한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 이 전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원팀' 이벤트 자리였던 전날 명남 차담 회동에서도 잡음이 드러났다. 이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은 찻집 앞 골목길에 모여 "사사오입 철회하라" "결선 없이 원팀 없다" "송영길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지지자가 이 후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이낙연 캠프 출신 일부 인사의 노골적 비토도 계속되고 있다.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정그리 하고 싶으면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며 "이미 친이재명 방송을 해왔고, 향후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놔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관건은 이르면 이달말 출범할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을 얼마나 이뤄내느냐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요직에 전면배치하고 이 후보 측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백의중군이라도 하겠다"면서 선제적으로 물꼬를 튼 바 있다.

네거티브 공방 최전선에 섰던 양측의 공격수들도 함께 전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기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野 '특검 수용' 피켓시위 vs 與는 박수 17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 수용' 피켓 시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사전환담을 위해 환담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도열했다.

국민의힘은 "환천대유 특혜비리 특검법을 수용하라" "특검거부 진실은 페그 자가 범인이다" 같은 구호도 외쳤다.

이후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전환담 후 문 대통령이 10시2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문 대통령을 환영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지지 않은 채 항의 의미의 피켓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겠다" "일상 방역에서도 K방역을 완성하겠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등의 대목에서 총 17차례 박수를 쳤다.

10시39분께 시정연설이 종료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후 문 대통령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립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지나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피켓에도 동요하지 않고 걸음을 옮기던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 의원에는 주먹인사를 건네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광주·전남 이낙연 캠프인사

이재명 선대위 합류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만난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기로 함에 따라 선대위 원팀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민주당과 이 후보 캠프,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주만에 이 후보를 만난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으며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가 구성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 후보측은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지지층 간 경선 양극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지층 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 이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으며 정관계 진출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지지자들이 아직 갈등 요소가 남아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했고 현역의원들의 가세하면 지지자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